

“10대 성범죄 높은 수위, 넷플릭스 밖에 없었다”

“대본 보자마자 꼭 해야겠다 생각
캐릭터 위해 교복 수실편 입혔죠”



넷플릭스 ‘인간수업’

“처음부터 방법이 없었다.”
2018년 초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329의 윤신애 대표는 한 권의 대본을 건네받았다. 2000년대 김충현프로덕션에서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모래시계’의 송지나 작가에게서 “아들이 글을 쓴다”는 말을 듣고서였다. 그는 대본을 읽고는 순간 얼어붙었다. 국내 드라마에선 볼 수 없었던 충격적 소재와 파격적 표현 때문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OTT)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의 시작이었다.

‘인간수업’은 10대 성범죄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높은 수위로 그려냈다. 드라마는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 모으며 시청자 시선을 끌고 있다. 윤신애 대표로부터 제작에 얹힌 뒷이야기를 들었다.

●왜 넷플릭스인가?

윤 대표는 진 작가의 첫 회 대본을 읽고 2회 차 이야기도 주문했다. 그리고 “이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작가는 뉴질랜드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다. 작가의 “경험보다 중요한 독특한 감각”이 시선을 끌어당겼다.

윤 대표는 “기존 드라마의 패턴을 벗어나 있었다”면서 “처음부터 넷플릭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돌아섰다. 심의 등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했다. 넷플릭스 측은 “정말 한국에서 만들 수 있나”라는 의문을 던졌다. 10대 성범죄의 내용이 가져다줄 파격성에 시청자가 받을 충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 대표는 2007년 MBC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호흡을 맞춘 김진민 PD에게 대본을 건넸다. 김 PD 역시 호기심과 의심의 시선을 동시에 품었다. 넷플릭스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줬다. 결코 선정적이지 않은, 현실고발의 메시지가 담보였다. 2018년 말 넷플릭스와 계약, 1년의 시간을 거쳐 완료했다.

●“교복만도 수실편”

모두 10회 차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동안 제작진은 넷플릭스가 요구하는 기술적 완성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0대 고교생들의 이야기인 만큼 각 캐릭터를

드러내줄 교복을 수실편이나 모델에게 입혀본 것도 그래서였다. 윤 대표는 “캐릭터별로 의상 스타일링을 달리 했다”며 주인공인 김동희의 부모가 부재하는 일상을 드러내기 위해 회색 등 무채색의 옷을 입혔다. “뽕지 않아도 별로 티가 안나기 때문”이었다.

‘인간수업’은 김동희, 백주현, 정다빈 등 신예 말고도 건달 임기홍과 노래방 마담 역 백주희를 널리 알리는 무대가 됐다. 극중 김동희를 협박해 또 다른 범죄를 꾀하려는 연인이다. 김동희의 하수인 최민수의 캐릭터가 워낙 강해 그와는 대비되는 다소 코믹한 캐릭터로서 역할을 다 했다. 이들은 ‘레미제라블’과 ‘그리스’ 등 뮤지컬을 통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다. 특히 임기홍은 김진민 PD의 2018년작 tvN ‘무법변호사’에 등장했다. 진선규가 소개했다. 작은 체구이지만 거기서 뿔어져 나오는 기체가 만만치 않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원픽!



음악·여행·먹방·다이어트까지 소유의 일상 기록 ‘소유기’ 화제

‘소유기(記)’가 화제다.

가수 겸 연기자 소유가 3월19일 문을 연 유튜브 채널 ‘소유기(記)’를 통해 누리꾼의 시선을 끌고 있다. ‘소유기(記)’는 ‘소유의 일상을 기록하다’는 의미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하는 소유는 자신의 일상을 세심하게 드러내 보이며 가수답게 음악 관련 콘텐츠는 물론 여행, ‘특기’인 먹방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노하우를 소개하며 45만 이상 조회수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자신의 언니와 함께 다양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으로 친근감을 안긴다. 식단 조절부터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까지 언니와 호흡을 맞춰 선보인 영상 ‘소유와 언니의 티격태격 홈트(홈트레이닝)’는 그의 털털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실컷 먹고 나서 시도하는 다양한 다이어트 운동법을 소개하며, 그야말로 ‘맛충형’ 콘텐츠로서 기능까지 과시하고 있다.

‘소유기(記)’를 개설해 팬들의 시선에 더욱 가까이 다가온 소유는 6월12일 SBS Plus리얼리티 브이로그 예능 프로그램 ‘와이낫 시즌3’에 출연한다.

윤여수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1 개봉 시기 2 이태원 편견 깬 ‘초미의 관심사’

여성 투톱 이태원 배경 추격전
27일 개봉...영화계 활력 앞장

“어떤 모습의 사람이 거리를 지나가도 편견 없이 바라보는 곳이 이태원 아닐까요.”

27일 개봉하는 영화 ‘초미의 관심사’(제작 레진스튜디오)를 연출한 남연우 감독이 각양각색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극의 배경을 서울 이태원으로 택한 이유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수 한국영화가 여전히 개봉을 꺼리는 가운데 당당히 출사표를 던진 감독은 18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서 “영화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는 작품이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초미의 관심사’는 엄마와 언니의 돈을 훔쳐 가족같이 사라진 막내의 행방을 찾아 나선 모녀의 이야기다. 배우 조민수와 래퍼인 가수 치타가 본명인 김은영을 내걸고 연기에 처음 도전해 호흡을 맞췄다. 달라도 너무 다른 모녀 관계로 만난 두 배우는 ‘팔팔팔팔’ 살아 숨 쉬는 연기 앙상블을 완



영화 ‘초미의 관심사’ 남연우 감독과 가수 겸 연기자 김은영(치타), 테리스 브라운(왼쪽부터)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성한다. 제 옷을 입은 듯한 호흡이 여성 투톱 영화의 매력까지 배가시킨다.

영화에서 이태원은 단순히 극의 배경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이태원 일대를 살아가는 모녀의 추격전을 통해 성소수자, 드래그 퀸, 한국에서 태어난 흑인 등 ‘특별하다’고 볼 만한 인물들이 어우러진다. 하필 최근 이태원의 클럽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 탓에 이번 영화는 개봉 시기는 물론 배경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남연우 감독은 “모녀의 여정에서

편견을 가진 만한 인물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편견 없이 보는 장소로 이태원이 적합했다”고 밝혔다. 영화가 담아낸 ‘편견’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최적의 장소였다는 설명이다.

배우로도 활동하는 남연우 감독과 이번 영화를 통해 배우로 데뷔한 치타는 실제 연인 사이이기도 하다. 극중 재즈가수 역을 소화한 치타는 ‘철없는’ 엄마로부터 일찌감치 벗어나 독립심을 키운 당찬 인물을 연기하면서 매력을 뽐낸다. 남 감독은 “배우가 되

겠다고 마음먹은 지 20년 가까이 되는 저는 연기에 대해 늘 고민하는데, (치타는)활영하는 많은 순간 감정을 적절히 표현해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치타는 재능을 살려 영화 OST에 담긴 5곡을 작사·작곡했다. “영화의 주제에 맞춰 편견이란 키워드를 기동 삼아 작업했다”는 치타는 “음악과 영화가 이질감 없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주방의 유해가스 연기로 하루 4,000여명 사망-WHO 세계보건기구 발표
식당 버너 하나 교체 했더니~ 유해가스가 없는 식당이 됐어요!
유해가스 70% 감소, 가스비 30% 절약!

기존 화구는 직선으로 막힌 그릴로 인해 불꽃이 분산되어 가스낭비와 조리시간이 길어졌으며, 화구 구멍이 국물에 막혀 엄청난 가스비가 낭비됩니다.
친환경 코벨소 화구는 불꽃이 가운데로 모여 막힘없이 열효율이 향상되어 조리시간이 단축, 가스비가 절약됩니다.

친환경화구
코벨소
그을음, 구멍 막힘, 유해가스, 불꺼짐, 횡단 화구

정품인증마크
코벨소 친환경 화구

교체전후

가스렌지(간택기)는 그대로 사용하세요.
코벨소 화구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가스의 완전연소를 통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의 발생억제 및 가스비 절감에 되는 제품이며 주방종사자에게는 건강을 사장은 비용 절감효과를 드립니다.

코벨소 1열 버너
용도: 1인용 독배기, 각종 찜계류

코벨소 2열 버너
용도: 각종 육수, 달 등 조리용

코벨소 3열 버너
용도: 볶음, 볶음(육수우림)으로 많이 사용

뚜껑만 물에 씻는 간편한 청소!
주철로 만들어진 구형화로는 달리 친환경 코벨소화구는 세라믹코팅으로 부식을 방지해 녹이 나지 않고 그을음이 없어 화구정소시 상부의 화구만 분리해 간편한 물청소가 가능한 편리한 친환경화구입니다.

세제로 닦고 행구면 끝!

통식특수세라믹 코팅의 긴 수명 / 부식방지
주철로 만들어진 구형화로는 달리 친환경 코벨소화구는 통식을 깎아 세라믹코팅을 올려 화구의 부식을 막고 구멍 막힘이 없는 화구와 발침대가 분리되어 있는 이중구조로 수명이 길며 안정된 화력과 가스절감 효과가 탁월한 친환경 화구입니다.

부식방지, 긴 수명, 구멍 막힘없는 화구

원전연소로 가스비 18~30% 절약!
구형화구는 직선형 구조로 막힘과 부식으로 유해가스 배출이 많은 구조인데 반해 친환경화구는 터널형 돌니구조로 구멍막힘이 없어 불완전연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주방환경 개선에 탁월한 화구입니다.

이중 분리 구조로 완전연소, 일산화탄소 70% 감소

자체 효율 테스트 결과 (독배기, 화구, 화력 등은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

	구형화구/구형그릴	친환경화구/구형그릴	친환경화구/친환경그릴
끓는시간	3분30초	3분	2분40초
개선 %		15%	23.8%

■ 상담 후 무료설치가능 / 할부가능

**우리 사장님의 친환경 사랑으로
주방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코벨소 친환경화구 정말 최고예요~!

전 벨기에서 온 장 마르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양의 문화에 반해 여러 동양 음식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음식을 좋아해 한국에 온지는 10년 정도 됩니다. 한국 음식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훌륭한 음식들이 많습니니다. 특히 쉐 불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특출난 맛으로 유명하지요, 저희 나라 벨기에도 뜨거운 열로 만들어 내는 음식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 굵거나 찌는 화로 형태로 이루어져 음식을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요리집도 예전에는 구형화로를 사용해 비위생적일뿐만 아니라 가스 세는 냄새로 음식을 만들기 전부터 머리가 아파오곤 했습니다. 그러면 중 사장님께서 주방 식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코벨소 친환경 화구로 교체해 주시면서 우선 주방이 깨끗해져 위생적이고 가스냄새 걱정 화력걱정 없어요, 요즘은 요리 할 맛 나네요. 감사합니다 코벨소 화구 저도 많이 알고요 다녀야 겠어요, 사장님과 코벨소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곳에 사용하시길 적극 권해드립니다

고기집(삼겹살, 소고기), 구이집, 생선구이 및 불고기 집, 야외식당, 장어구이 집, 떡볶이 집, 꼬치구이 집, 칼국수 집 등 각종 요리 집 또는 식당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코벨소화구 검색하세요

문의 1644-4273